

음성 가이드 : 스즈메 지옥

큰길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귀를 기울이면 빠직빠직 터지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스즈메 지옥에서 나는 소리로, 지하에서 내뿜은 증기가 작은 새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온천의 이름은 매우 슬픈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570년대에 온젠의 사찰에서 수행 중이었던 한 어린 승려가 귀중한 하얀 참새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원의 어린 승려(어린이)와 흰 참새를 서로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 싸움이 원인이 되어 온젠에서 사원간에 큰 다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많은 절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의 요곡(전승)에서 유래되었습니다.